



분열을 유도하는 자와 이를 막는 자

- 회원이 협회 상대로 소송 제기 -
- 협회 업무 관련 농림부에 민원 제기 -
- 10월 11일 MBC 불만제로 방송에 제보 -

최규칠 사무총장

지난 8월 31일 본 협회를 피고로 한 소장이 날아왔다. 소송을 건 상대는 다름 아닌 본 협회 회원이었다. 소송의 취지는 금년 7월부터 협회가 업무개선에 들어간 일반잡화필증 봉인검사 중단에 관한 건을 무효케 해달라는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한편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익명으로 농림부에도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에 더해 지난 11일에는 MBC '불만제로' 프로그램에서 사양꿀 생산과 관련된 현장을 포착하여 취재한 내용이 서울, 경기 등 일부 지역에 방송되기도 했다. '불만제로'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소비하는 수많은 상품과 서비스의 부당함을 감시·고발하는 프로그램으로 첫방송부터 시청자들의 많은 인기를 끌고 있으며, 그만큼 파급효과도 매우 크다.

이 방송에 제보를 한 사람 역시 다름 아닌 우리 양봉인임을 담당 PD를 통해 전해들을 수 있었다. 방송국에 제보된 주된 내용은 일부 양봉농가의 사양꿀 생산과정, 판매업체에 판매·유통되고 있다는 것이었고, 심지어 협회제도개선에 따른 불만으로 협회에 소송을 제기한 자세한 내용까지 방송국에서는 파악하고 있었다.

불만제로에서 사양꿀에 대한 협회의 입장과 대책에 대해 취재하고 싶다는 연락이 처음 왔을 때, 불만제로는 이미 사양꿀 생산현장과 사양꿀을 취급하고 있다는 모 업체에 대해 촬영을 모두 마친 상태였다. 그리고 지난 양봉인의날행사 전 4일 본 협회를 찾아와 서울대 우건석 교수와 사무총장, 연구소장을 인터뷰하기에 이르렀다. 이날 인터뷰에서는 국내외의 사양꿀 실태와 이와 관련한 양봉협회의 향후 계획, 그리고 탄소동위원소 등의 벌꿀 실험 과정에 대해 주로 인터뷰하였다.

불만제로는 원래 이 방송을 10월 중순경에 40분에 해당하는 프로그램 방송시간을 모두 할애하여 내보낼 계획이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우리 업계 피해가 더욱 크게 확산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본 협회는 MBC에 즉각 방송을 중단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과 함께 강력한 항의문을 전달하는가 하면, 10일 전기현 회장은 임원, 지회장을 포함한 15여명과 함께 직접 방송국을 방문하여 시사교양국장, 관계자와 면담하여 양봉인들의 입장을 대변하기도 하였다. 전기현 회장은 이 자리에서 우리 양봉농가가 지난 4년간 흉작으로 생사를 다투는 어려움에 처해 있으며 이번 방송으로 우리 양봉농가에 돌아오는 여파가 우려된다면서, 사양꿀을 생산하는 일부 농가에 대한 편향적인 내용으로 인해 정직하게 양봉을 하는 대

부분의 선량한 양봉농가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대한으로 배려해 줄 것을 요청했다. 우리의 입장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시사교양국장 및 관계자는 현재 양봉인들이 처해있는 어려운 상황을 최대한 고려하여 방송시간을 20여분으로 줄이고 방송 내용을 적절히 조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주시기로 약속하였으며, 이러한 우여곡절 끝에 지난 11일 양봉과 토종 각각 10여분씩 최종 방송을 하기에 이르렀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최종 방송 내용은 주로 사양꿀을 생산·유통하는 특정업체에 초점이 맞추어져 방송되었다. 그리고 방송 이후 불만제로 게시판에서는 소비자들의 불만 섞인 의견도 종종 있었지만, 그 보다는 양심적인 생산농가들의 고충과 이를 위로하는 소비자들의 목소리를 엿볼 수 있어 가슴 따뜻한 감동을 주었다.

본 협회는 방송 이후 사양꿀에 대한 대처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농림부 및 식약청과 대책 회의를 가졌다. 특히 협회에서는 벌꿀의 표기기준을 마련하고 식약청에서는 사양꿀과 천연꿀의 표시규정을 제도화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농림부, 식약청과 협의 중에 있다.

협회는 이번 방송을 계기로 지금까지 지독하게 우리를 괴롭혀왔던 사양꿀 문제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할 것이며, 외국에서처럼 사양꿀도 식품 원료나 제조업(제약, 제빵)요리, 식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표시기준을 마련하고, 소비자가 판단 할 수 있도록 정확한 표시기준을 마련하여 사양꿀도 천연꿀과 동일하게 판매 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와 판로의 길이 개척될 수 있도록 별도의 검사기준 마련을 위해 협회와 식약청이 공동 연구사업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건의하였다. 최근 업계 내에서는 위와 같은 문제들이 연달아 계속 발생하고 있다. 아마도 이는 협회 사업과 업무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양봉농가들이 협회와 조화되지 못하고 각자의 견해와 입장대로 행동하는 자와, 개인 또는 단체에서 이권을 노리고 더욱 부채질하는 행동으로 볼 수 있다.

지금처럼 우리 양봉업계에 위기가 닥친 이 때 우리는 문제를 만들고 수습하기에 급급하는 것으로 이 귀중한 시간을 허비하고만 있어야 하는가! 이러한 시간을 우리 양봉업의 발전을 위해 좀 더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는 없지 않은가! 그나마 다행인 사실은 우리가 현재 처해 있는 우리의 문제점을 알고 있다는 것이다. 이미 우리의 문제점을 알고 있다면 이제는 문제를 바로 잡기만하면 되는 것이다.

회원이 협회 상대로 소송 제기, 협회 업무 관련 농림부에 민원 제기, 10월 11일 MBC 불만제로 방송에 제보 등을 지켜보면서 우리 업계 내부에서 몇몇 사람의 오판으로 업계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으며, 결국 이러한 문제들로 우리양봉농가들이 피해를 보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므로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양봉인 스스로가 반성하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합시다.

협회는 영리를 목적으로 행동하는 단체가 아니며, 오직 양봉농가와 업계전체를 위하고 업계발전을 위해 보다 큰 틀에서 움직인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한 단체 또는 개인 혼자만 살겠다는 언행과 행동을 자행하는 자들이 있다면 먼 미래와 양봉산업발전을 위해 우리 양봉인들이 추방시켜야 될 것입니다.

이제는 개인이익과 목적을 위한 행동은 자제하고, 더 이상 업계 내에 서로를 헐뜯고 비방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하고, 이번 기회를 통해 우리 스스로가 반성하는 계기마련이 되어 미래 양봉산업발전을 위해 우리 다같이 협회를 중심으로 힘을 모읍시다.